

다시 불붙은 '무차입 공매도' 쯤페 논란

증시 시스템 불신 확산...공매도 폐지 요구 국민청원 금감원 "이번 사고는 시스템상 오류...연결고리 곤란"

삼성증권의 배당 착오사태를 계기로 9일 공매도 제도 존폐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이 붙었다.

발행되지 않은 삼성증권의 '유령 주식'이 버젓이 거래되면서 법적으로 금지된 무차입 공매도가 증권사 전산 조작만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공매도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공매도는 현재 가지고 있지 않은 주식을 매도한다는 의미로 하락장에서 수익을 내는 투자기법이다.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판 뒤에 주가가 실제로 내려가면 싼값에 주식을 다시 사들여(숏커버링)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얻는다. 반대로 주가가 오르면 손해를 보게 된다.

공매도는 과대평가된 주식의 거품을 빼고 하락장에서 증시 유동성을 높이는 등의 순기능이 있지만 지나친 변동성 확대나 작전·투기 세력 개입 가능성, 개인 투자자 피해 등은 문제로 지적돼왔다.

현재 국내에서는 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빌려와 매도하는 '차입 공매도'만 허용돼 있다. 빌려온 주식 없이 일단 매도부터 먼

저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문제는 이번에 삼성증권 직원들이 잘못 배당받은 주식을 매도한 것이 외형상 무차입 공매도에 가깝다는 점이다.

삼성증권 직원들에게 배당된 주식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즉 '없는 주식'임에도 일부 직원이 이를 매도해 수익을 챙겼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는 주식 없이 매도 주문을 내는 무차입 공매도와 일맥상통한다.

이번 사태를 통해 증권사 전산 조작만으로 무차입 공매도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이 드러났으며 공매도 제도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금융당국에서는 일단 삼성증권 일부 직원들의 '유령 주식' 매도를 무차입 공매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무차입 공매도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내는 것이지만 삼성증권 직원들은 착오로 배당된 것이거나 하나 개인계좌에 찍힌 주식을 팔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번 사태를 수습 처리 과정이 무차입 공매도와 유사하게 진행되기는 했다. 하지만 이번 사고는 공매도 제도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보다 더 심각한 시스템상의 오류 때문으로 공매도 제도와 바로 연결짓기는 곤란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삼성증권 사태와 관련해 공매도 폐지를 요구하는 글이 수십 건이 올라와 있다.

지난 6일에 올라온 '삼성증권 시스템 규제와 공매도 금지' 청원 글에는 참여인원이 17만명을 넘어섰다.

/연합뉴스



KT가 '올레tv' 출시 10주년을 맞아 연말까지 고객감사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올레tv 10주년' 고객감사 페스티벌

분기별 이벤트 마련...2분기 내달 5일까지 접수

KT는 IPTV인 '올레tv' 출시 10주년을 기념해 연말까지 대규모 고객감사 페스티벌 '올레tv 텐 페스타'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올레tv 주요 콘텐츠를 장르별로 구성해 이벤트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마련됐으며 2분기 '키즈', 3분기와 4분기는 각각 '무비'와 '뮤직'을 테마로 운영된다.

KT는 키즈 테마로 진행되는 2분기 행사의 첫 번째 이벤트로 다음 달 19일부터 이틀간 인천 서울랜드에서 '캐릭터 운동회'를 열 예정이다.

캐릭터 운동회는 올레tv 고객이라면 누구나 오는 10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KT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KT는 2008년 11월 국내 최초로 IPTV를 전국에 상용화했으며 '메가패스트V', '메가TV', '록TV' 등을 거쳐 현재 '올레tv'라는 이름으로 IPTV 서비스를 중이다.



쿠팡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한다.

쿠팡, 가정의 달 맛이 빅 이벤트

내달 9일까지 인기 브랜드 할인·쿠폰 발행

이커머스기업 '쿠팡'이 국내 온-오프라인 유통채널 중 가장 먼저 '2018 가정의 달 빅이벤트'를 시작한다.

쿠팡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이 완구, 장난감, 건강보조식품, 화장품 등 다양한 선물용품 한곳에 모아 저렴한 가격에 선보일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내달 9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서는 레고, LG생활건강, P&G, 이룸, 아이리스 등 국민 장난감 브랜드부터 생활용품 대표브랜드, 프리미엄 브랜드까지 60여개 국내외 인기 브랜드 상품을 즉시할인, 쿠폰할인 등 다양한 혜택과 만나 볼 수 있다.

쿠팡은 어린이날 선물관, 어버이날 선물관, 테마관, 브랜드관으로 제품을 분류해 고객이 원하는 것을 쉽게 찾고 가격, 기능, 디자인 등을 편리하게 비교해보고 구매할 수 있게 했다.

/강상구 기자 rkdtkdrn0913@

광주 상공회의소·광산구청 산단 업체 기숙사비 지원

광주상공회의소와 광산구청은 평동산단과 소촌산단, 소촌농공단지 입주 업체에 직원들의 기숙사비를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업체들이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산업단지 주변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빌라, 원룸 등을 임차해 근속연수 5년 미만 직원의 기숙사비 제공하면 임차료(월세)를 기업당 10명 이내, 1인당 월 최대 30만원 한도(임차비의 80%) 내에서 지원한다.

신청임원 중 입사 6개월 미만 신규 채용자 비율이 20% 이상이어야 한다.

나머지 월세 20%와 보증금 및 월 관리비는 기업이 부담해야 한다.

6개월 미만 단기계약자나 외국인 근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은 사업비(2억7천만원)가 소진될 때까지 계속해서 신청을 받는다.

광주상공회의소 홈페이지(www.gjcci.or.kr)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하고 신청하면 된다.

문의는 광주상의 나주지부 061-334-5802.

/김태업 기자 esaca@



RPC 경영대상 시상식. 농협은 9일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미국종합처리장 전국운영협의회 소속 조합장 등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RPC 경영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전남농협 제공

광주은행 '종이문서 없애기' 좋아요

신청서 등 전자문서·서명 대체...효율 ↑

광주은행이 모든 영업점에서 종이 신청서 대신 전자문서 사용에 대한 고객들의 반응이 좋다.

9일 광주은행 등에 따르면 광주은행은 고객이 작성하는 각종 신청서를 종이 문서에서 전자문서로 대체하는 PPR(Paperless Process Reengineering) 시스템을 지난 2일부터 모든 영업점에서 도입했다.

PPR을 모든 영업점에서 도입한 것은 지방은행 중 광주은행이 처음이다.

PPR 시스템은 디지털 모니터와 전자펜, 전자서식 등 디지털 요소를 접목해 종이 없이도 필요한 디지털 창구시스템이다.

이에 따라 광주은행 고객들은 종이 신청서 대신 모바일을 통한 신청서를 작성하고 중복으로 작성해야 하는 항목 및 서

명을 한 번으로 처리하고 있다.

광주은행 고객 최모 씨는 "평소 손글씨 쓰기를 싫어하고, 금융기관에서 보기에 따라 불필요한 여러 서식을 작성하는 게 탐탁지 않았는데 모바일을 통해 간단한 인적사항과 사인만 하고 금융거래를 할 수 있어 편리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고객 김모 씨는 "나이 드신 분들은 돋보기를 써가며 종이 문서를 작성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창구직원의 안내대로 전자문서에 간단한 인적사항을 입력할 수 있어 만족한다"고 말했다.

/이영호 기자 e20504@

기사제보 2580@jndomin.kr

보호와 사랑으로 행복을 찾아주세요

행복한 어린이가 나라의 미래입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전남도민일보